

현대 언어학의 학제적 위상에 관한 一考*

오충연**

목 차

- I. 머리말
- II. 전환적 時點의 현대 언어학
- III. 인문·사회학에 대한 언어학의 역할의 재조정
- IV. 언어학에 대한 자연과학적 토대의 필요성
- V. 맺음말
- 참고문헌

I. 머리말

본고는 현대 언어학과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제 학문분야의 새로운 협동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물론 어떠한 분과 학문이든지 다스 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순수하게 독립적인 영역은 없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20세기 초기에 학문적 기틀이 마련된 현대 언어학은 근래에 이르러 인문주·자연 전영역에 걸친 제반 과학들과의 교류를 가장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20세기 후반에 발전한 생성문법에서 이론적 목표로 삼아 온 ‘언어능력(Language Competence)’이 생리 및 심리의 영역과 결부되면서, 기존의 구조주의 문법에서 추구한 언어자체와 달리 생리학이나 의학, 또는 인지과학 등 자연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두뇌에서 언어가 독립적인 영역을 차지한다는 생성문법의 이론은 곧 언어를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으로 규정짓게 하고, 이에 따라 근래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유전자를 밝혀내는 일에 학문일생을 바치는 학

* 이 논문은 2002년 9월 27일 숭실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에서 주최한 “신임교수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고치고 다듬은 것이다.

**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자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20세기 초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언어 자체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그에 따른 주변 학문은 사회학이나 문학, 정치학 등의 주로 인문학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언어학은 주로 이들 주변과학에 방법론적 틀을 마련해주는 기초학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제 언어학은 인문·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전산 언어학 및 인공지능, 그리고 생물·생리학과 의학 등의 분야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언어학이 주로 다른 인문학에 기초자료(source)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음에 비해서, 이제는 언어학이 이들 자연과학 분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공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언어능력은 사실상 두뇌 생리나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언어학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를 절실하게 요구받게 된 것이다. 때문에 현대 언어학은 제반 과학과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다소간 재조정되어야 한다.

II. 전환적 時點의 현대 언어학

언어에 대한 사유는 이미 고대 희랍철학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다. 서구 합리주의의 기원을 보자면 소크라테스가 대화법을 통해서 이성을 존중하자고 제안했을 때부터인데, 이는 언어를 통해서 완성된다. 플라톤의 이데아도 사실상 언어적 양식이다. 그것은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실재(real)가 아니라 랑그와도 같은 社會共用的이지만 抽象的인 관념이다. 진리를 언어의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강조한 부류로는 소피스트를 들 수 있는데, 동양에서도 중국 제자백가 시대의 '名家' 사상가들이 이와 유사한 사변들을 한다. 서양 중세기를 거치면서 합리주의의 퇴화는 곧 진리적 속성으로서의 언어탐구도 쇠락하게 된다. 그러다가 근대에 이르러 합리주의의 부활과 여러 사상들이 再起되기 시작하면서 언어에 대한 태도도 복귀된다.

그러나 19세기 말 F. de Saussure가 그 자체로서의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전까지, 문법이란 주로 바르게 말하기, 읽기, 쓰기에 관한 규정이었다. 혹은 문학 텍스트 제작의 기법과 관련한 수사법으로 통하기도 하였다. 진리에 대한 탐구의 방법도 아니고 교육을 위한 문법도 아닌, 언어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된 것은 Saussure가 '랑그(langue)'의 개념을 제시하면서부터이다.

Saussure의 랑그는 절대불변의 공시대를 가정하고 세운 개념이다. 이는 곧 이데아적인 속성을 갖는데, 모든 현실발화인 빠롤(Parole)의 원리가 되면서도 현실화되지 않는 것이다. 즉 실재(real)나 실존의 것은 아니다. 이는 개별화자의 심리와도 분리되는 共用的 고유체계이다. 따라서 소쉬르의 랑그는 사회학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Saussure로 인하여 언어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말을 잘 할 것인가 혹은 글을 잘 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쓰이는 언어를 그대로 기술하는데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자체 목적적이라는 점에서 소쉬르의 언어학은 이를 전수한 학자들에 의해서 객관적 입장을 지향하는 기술문법으로 흐르고 더불어 경험주의적 방법론을 채택하게 되지만, 랑그 가지고 있던 본래의 특성은 플라톤에게 있어서처럼 관념적이고 연역적 체계를 가진 합리주의적 발상이었다.

이러한 구조주의의 자체 목적적인 대상으로서의 언어연구는 1950년대 Chomsky에 의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그것은 언어 자체라기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많은 문장을 발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제, 즉 '언어능력(Language Competence)'로 그 연구 대상이 옮겨져 간다. 그것은 생성문법이었다. 언어능력이란 인간의 심리·생리적 기제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Chomsky가 주도한 변형생성문법이 1980년대 중반까지 발전한 추이를 보면, 심리 혹은 생리적 실재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다양한 양상으로 출력되는 문장에 대하여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닐만한 기저구조를 설정하고, 그 기저구조에서 어떻게 표면의 구조가 도출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때문에 다소간 추상적인 문법기제와 개념을 상정하게 된다. 이러한 성향은 GB이론(Government & Binding Theory)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처음의 목표와 얼마간 괴리가 있는 것이었다. 본래 Chomsky가 목표로한 언어능력이 심리·생리적인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하고, 이는 경험과 실증의 자료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Chomsky의 방법론은 연역적이었고 스스로도 합리주의를 천명하여, 다만 설명적 타당성을 요체로 한다. 그러한 결과 설명적 타당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논리적 필요에 의한 개념들이 언어학자들조차 벅찰 정도로 쏟아져 나온 반면, 그것들이 심리·생리적 실체들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GB이론까지 그들의 연구는 의미구조가 같은, 그러나 통사구조가 다른 여러 문장의 함수적 관계나,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의 공통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들의 관계를 공통되게 기술할 수 있는 D-구조(D-Structure)와 같은 추상적 문법구조를 설정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GB이론까지 이러한 방법론은 결과적으로 현실의 언어를 재료로 하여 그것의 전형이 되는 추상적 심층구조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생리 및 심리적 측면에 대한 고찰은 아니었다. 사실상 이러한 방법적 측면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연구대상이었던 랑그의 변형을 설명적 측면을 강화한 것일 수도 있다. 즉 여기서 유의해야 할 바는, GB이론까지의 실제 연구대상이 언어능력이었는가 아니면 언어 자체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다양한 문장을 일원적인 발로로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기저구조와 표면구조 간에 내세운 기계적, 함수적 변형관계가 과연 인간의 발화과정과 직접적으로 닮은 모양새일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극히 회의적이다. 그것은 단지 논리적 필연성에 의한 것들이었는데, 이는 소쉬르가 제시한 랑그에 대한 탐구가 개별 언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연구라는 것이다. 단순하게 이야기 하면 언어능력은 언어를 분석재료로 한 방법만으로는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이다.

Chomsky가 정확히 이와 같은 반성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그의 원리-매개변인(Principle & Parameter)이론을 내세우고 이어 최소주의 기획(Minimalist Program, Chomsky 1995)을 제시함으로써 20세기 중반 이후 1980년대까지 언어학계에서 일대 선풍을 일으킨 변형문법은 사실상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에 의해 추상적인 문법기제들이 대폭 정리되고 Chomsky의 언어이론은 인간의 심리적·생리적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부각된 것이 인간의 두뇌에 실제의 개별언어 자료들이 입력되기 전의 순수 생리적 언어 상태인 최초의 상태(initiative state)를 가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변형생성문법을 포함한 기존의 언어학적 방법들로 밝혀질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세기 중반이후의 언어능력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사실상 20세기 중반이후에 생성문법에서 목표로 한 언어능력에 대한 탐구는 생성문법의 내부에서조차 그 방법론이 모호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그 작업이 언어학 내적 방법으로만 해결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¹⁾ 그렇다면 언어학이 도

1) 이와 관련하여, 김지홍(2002)은 “촘스키 언어학에는 언어가 없다”고 하면서도 근래의 최소주의 기획(minimalist program)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이는 기존 변형문법의 반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곧 언어학의 대상에 관한 문제로 이는 언어학의 정체성에 관한 위기의식을 불러올 수도 있다.

움을 받아야 할 분야의 학문과 언어학이 도움을 주어야 할 학문의 범주들을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Ⅲ. 인문·사회학에 대한 언어학의 역할의 재조정

1. 사회·문화 현상의 해석과 언어학

전통적으로 언어학은 인문·사회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중에서도 철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법학 등이 비교적 질실하게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언어학적 요구사항은 의미와 그 해석의 문제에 귀결되고는 한다.

하나의 기표에는 하나의 기의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 Saussure적 관점은 서구의 합리주의적 전통에서 암묵적인 인식이었다. 그리고 의미의 유동성은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서 달리 해석되는 정도였다. 실제적 쓰임새에 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미해석을 유도하는 것은 수사학 정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R. Barth는 그의 신화론(Mythology)를 통하여 은유(Methaphor)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것은 주지하다시피 Saussure의 기표(signifian)와 기의(signifie)의 2차적 결합관계로 이해된다.

이후에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상황이나 해석체, 역사성과 결부지어서 변모하는 의미의 다양성을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기표와 기의의 1:1 대응관계는 해체된다. 이는 곧 이데아적 속성으로서의 언어가 해체된 것이며, 합리주의적 전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미의 유동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소통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심성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서는 후기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소홀히 한 바가 없지 않다. 그토록 많은 의미의 다변성, 나아가 단 한차례도 동일화될 수 없는 빠름이 어찌하여서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의사소통체계를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밝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즉 기호의 불변성과 가변성을 동시에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하는 기제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의미에 관한 언어학의 경향을 소개하고 이를 철학이나 사회학과 결부시켜 그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보자.

Chomsky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변형문법에서는 의미에 관하여는 단지 도출된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기제이지 문장의 생성적 원리가 되는 기제로 삼지는 않는다. 이를 해석의미론이라 하는데, 같은 생성문법 내에서도 의미를 문장의 생성적 원리로 삼는 생성의미론이 대립적 입장에 있었다.

의미와 통사에 관한 어휘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동사의 의미구조에 따라서 주어나 목적어 또는 여격어 혹은 처소어 등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1990년대에 대두된 이론이 연결이론(linking theory)이다. 술어의 의미구조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이행해야 할 명사적 요소를 논항이라고 하는데,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나 목적어 등의 명사구 성분이거나 그러한 자질을 가지는 절이 논항이 된다. 이들 논항의 성격은 의미역(thematic role)으로 규정되어 행위주(Agent), 대상(Theme), 처소(Locative), 수혜자(Beneficient)..... 등등으로 분류된다.²⁾

그러나 이러한 의미구조를 이용한 문장의 구성원리를 찾으려는 시도도 어휘나 문장의 의미를 고정적으로 둘 수밖에 없으므로 해서 자연어 생성원리에 있어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의미역 이론이나 논항 이론이 통사론에 있어서 모호한 견지에서 서며 실제 자연어를 분석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생성문법은 지나치게 설명력 위주의 문법 이론을 펼친 결과 의미를 고착화시키고 자연어를 이론 내적 체계로 강제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마치 실제세계를 모방하고 있는 컴퓨터의 가상세계가 실제세계에 대하여 그에 준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도 같다.

자연어의 의미에 대하여 비교적 기술적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근래의 의미이론으로는 인지문법의 이론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앞에서 말한 포스트모던적 다의성과 의사소통의 기반이 되어야 할 자기동일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론의 가능성을 여기에서 살펴 보려 한다.

인지의미론은 의미에 관하여 원형성이 기반을 둔다. 예컨대 '가다'와 같은 어휘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하나의 원형(prototype)을 두고 그를 기준으로 가변적이고 확대되는 의미들을 포용하고 있다. 확대되는 의미는 원형을 중심으로 방사상의 그물망으로 놓이게 된다. 이러한 모델은 기존의 기호학에서 새로운 의미 창출로서의 은유나 해석체에 따른 유동적 의미들에 대하여 등가성을 보존해줌으로서 어휘정체

2) 변형이론 계열에서도, Larson(1988)은 의미역 구조를 기존의 D-구조와 일치시키고 있다. Larson(1988)은 이른바 '순수의미역구조를 D-구조라 설정한다.

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제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그물망은 어휘와 어휘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염두에 뒀으로써, 모국어 화자의 두뇌에 있는 어휘목록(lexicon)의 조직적이고 유기적이며 가변적인 체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는 Saussure가 고정불변의 공시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언어이론과는 차별화됨은 물론이거니와, 기계적 도출관계로 보여주기 위해서 함수값 책정을 위해 언어단위들의 의미나 기능적 변이를 고려해서 제외하거나 고정화시킴으로써 얼마간 언어사실을 왜곡시켰던 기존의 변형문법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구조주의 언어학이나 생성 언어학에서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언어의 고착화된 본질 경계 설정에서 비롯된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다. 우리는 원리적 분절성과 더불어 실행적 연속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인지 의미론에서는 의미를 연속변차성 가운데에서 파악한다. 이는 자연어의 속성과도 같은데, 음성적인 측면에서나 의미의 측면에서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언제나 변화의 연속에 있다.

만일 언어가 완전히 분절된 고정값을 갖고 있고 다만 실제 언어수행에는 이것이 조금씩 왜곡될 뿐이라면, 언어는 역사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언어단위들이 음운, 통사, 의미에 걸쳐서 변화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언어가 역사적·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변화하지 않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고정값을 두려는 시도가 얼마간 재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회현상을 다루는 데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Barth는 언어단위의 제2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1의 기표와 기의가 결합된 1차기호가 하나의 기표로 작용한다는 조합적 원리로서 파악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1의 기의가 제2의 의미와 등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물론이고, 제2의 의미는 제1의 기의처럼 사전적이고 명료한 것도 아니다. 제2의 의미 즉 2차 기의가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명료한 것이었다면 근본적으로 은유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은유는 근본적으로 제1 기표가 혼자서 단일 단위로 마련할 수 있는 의미의 장에서는 소통적인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채택하는 문맥 의존적인 의미 확장 체계이다.

(1) ?슬픈 돌이 웃는다

(1)은 의미론적으로 어색한(abnormal) 문장이다. 그러나 이들이 종종 문학적 표현이나 일상어 중에 쓰였다면 청자에게(혹은 독자에게) 그것을 해독할 만한 코드

(code)가 제공된 상태일 것이다. 그 코드는 곧 상황적으로 주어진다. 은유는 기호의 일상적으로는 예측하기 힘든 의미부분을 문맥과 상황에 의존하여 해독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는 분절적 단위의 2차적 조합이라기 보다는 변화의 연속선차성에 있는 의미의 특정 '언저리'를 포착하게 하는 일이다. 만일 고착화된 분절적 단위로서의 의미값이 조합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그 새로운 의미, 즉 2차적 의미는 모호성(ambiguity)이 배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어가 모호하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방법이 단지 형식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랑그는 근본적으로 관념적 토대 위에 있고, 현상은 언제나 실제이다. 실재로서의 대상이 - 그것이 심리적 실제이든 물리적 실제이든 간에 - 항상 변화하고 임시적이며 연속적이듯이 의사소통상의 언어는 그 연속적 변화를 감내함으로써 완성도 있는 소통체계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의 언어단위 - 이때의 언어단위란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텍스트, 담화를 포괄한다 - 는 원형이 구심력을 발휘하고 상황이 원심력을 발휘하여 특정한 의미의 언저리에서 소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문화나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고착화된 해석보다는 보다 유연한 해석의 결과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문화는 근본적으로 대중의 심리와 결부된 것이다. 대중의 심리는 명료한 언리체계보다는 무의식적인 非언리체계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은 분절적 단위로서의 사유가 아니라 연속성과 모호성을 기반으로 한 非지각적 내면의식이다. 물론 우리가 문화현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코드를 마련하고 그것들의 의미들을 언리적으로 해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 해석이 필히 언술로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상 자체는 항상 유동적이 모호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의미의 중심부에 놓이는 원형도 그 위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지문법의에서 제시한 원형을 좀더 실제적으로 이해한다면, 언어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세 한국어의 '어엿브다'는 음운론적으로는 '예쁘다'로 변화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오늘날 '불쌍하다'에 해당한다. '어엿브다'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마음속에 두고 측은히 여기다'가 될 것이다. 즉 심리적 형용사이다. 따라서 '어엿브다'의 의미장(meaning field)에는 오늘날 '예쁘다'가

가지는 영역과도 교체될 수 있다. '여엿브다'의 의미장의 주변에 있던 '용모가 아름답다'가 세월이 흘러 원형(prototype)의 위치로 이동한 것이다.³⁾ 그렇다면 의미와 해석의 유동성은 기존의 역사성이나 관점(해석체),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sm)에 의해서 언어 본질적 영역이 파괴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영역에서 구사될 수 있음이 설명된다. 이것이 2차가 아닌 1차언어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2. 심리학

심리학은 이른바 최초상태(initiative state, Chomsky 1995 참조)⁴⁾ 대해서 밝혀 줄 언어생리학과는 달리,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 생리적인 순수언어기관과 일반인 지체계와의 관계화 능력, 사회·관습적 표상에 대한 수용능력, 화자의 내적 욕구에 의한 의도체계 구현 등의 것들을 포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동안 언어의 통사구조가 자율적인가 혹은 의미와 상관적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순수하게 통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기초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기초적인 부분은 문장이 선조적이라는 것이다. 이 선조성에 가해지는 계층적 구조는 의미와 심리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떡다'라고 하는 어휘가 있을 경우, 이는 통사적으로 두 개의 논항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X가 Y를 떡다'가 '떡다'라는 동사의 전형적인 격틀(case-grid)이다. 몇몇의 언어학자들은 '떡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배제한 채 두 개의 논항을 지니는 타동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논항의 수 및 종류에 따라 격틀을 구상하고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통사적 원형으로 삼으려 한다. 다시 말해서, 통사적 원형하에 각각의 어휘들을 대입함으로써, 통사적 원형을 순수 언어기제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다음을 보자.

3) 이때의 '원형(prototype)'을 '원형(archetype)'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후자는 심리와 결부된 기원적(original) 원형이라면 전자는 공식적으로 한 낱말이 가지는 의미의 중심적인 부분을 일컫는다. 더불어 인지언어학에서 일컫는 원형이론을 신화학이나 인류학에서 일컫는 원형이론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4) 최초상태에 대한 유전자공학 및 두뇌생리학에 대해서는 4절을 보라.

(2) 사과가 벌레가 먹었어.

위 예문에서는 '먹다'가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 개의 주어가 나왔을 뿐이다. 타동사 구문에 목적어가 없음은 물론, 주어가 두 개인 것도 설명하기 난해하다. 결과적으로 '먹다'가 가지고 있는 격의 쓰임새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언중에 의해 형성된 언어적 관습으로 유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먹다'는 의미가 같을 것으로 여겨지는 영어의 'eat'와도 문법적으로 동일화 될 수 없다.

자·타동의 구분이나 논항구조는 사실상 선택적으로 혹은 순수통사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변형문법학자들은 개별언어의 모습이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고 해서 이를 모두 순수언어규칙화하려는 무리수를 범하였다. 그러한 공통성은 단지 언어기관의 공통성뿐만 아니라 일반 인지체계나 신체구조의 공통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공통성을 마련해 주는 요소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언어만 담당하는 영역은 기존의 인식보다 훨씬 작게, 그러나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영역은 언어자료의 분석만을 통해 연구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언어와 그 사용에 대한 연구는 인지체계와 상관속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리학은 현대 언어학에 있어서 중요한 협력 학문이다. 일련의 분석과정에서 언어학자는 이상적이거나 인위적으로 규칙체계를 설정하던 기존의 연구와 다른 각도에서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주요 사항을 다음 두 가지로 간추리고자 한다.

첫째로, 앞의 '먹다'와 같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격들에 대한 의미론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이다. 원형적(prototypical)으로는 '먹다'는 행위에 대한 서술이고 행위의 참여자가 둘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갖는다. 이는 순수 언어지식이 아니라 세계 지식이다. 비교적 최근의 언어학에서는 '주격'이나 '목적격' 같은 표면적 성분표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행위주[Agent]'나 '대상[Theme]'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를 '意味役(theta-role)'이라고 한다. 그러나 의미역은 귀납이나 연역적 과정을 거쳐 탄생한 용어라기보다는 학자들의 직관에서 발달한 것이다(Williams 1994). '먹다'가 이끄는 사건에 참여하는 일련의 항목들의 조직은 그것이 문장으로 표출되느냐 않느냐와 관계없이 선제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사실 자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화자의 인지체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언어는

세계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그 세계를 인식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Palmer(1994)와 같은 논의에서는 언어의 유형과 관계없이 인간이 세계에 대한 인각체계로서 주어지는 역할을 관념적 역할(notional role)이라 하여 개별언어적인 한계를 지니는 문법적 역할(grammatical role)과 구분하고 있다. 의미역은 생성문법에서 논항의 역할로서 발전시킨 개념인데, Palmer(1994)의 기준에 의하면 문법적 역할에 가깝다. 그러나 이 문법적 역할로서의 의미역은 언어마다 학자들마다 다르게 설정되어서, 이 것이 엄격한 논리적 과정에 의해 도출된 개념이라기 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직관적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개념화한 것뿐이다.

둘째로, 통사 및 의미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관습화(encoding)를 거친 것들이 언어지각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고전적인 문제인데, 무지개의 색을 7가지로 표현하는 언어와 5가지로 표현하는 언어에서, 언중의 세계 지각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한 것과 결부된다. 이는 사유과정과 언어의 상관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2)와 같은 '먹다'의 문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적용하려는 게 언어학자의 입장이다.

언어세계는 복잡계이다. 그러나 순수언어세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단순한 원리로 운영될 수 있다. 심리학은 일반 인지체계와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약정체계, 그리고 이것을 생리적으로 마련되는 순수언어영역과의 유기적 상관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언어학이 심각하게 의존해야 할 분야이다. 언어의 실제적인 운용은 이른바 자율적 언어관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간 구조주의 언어학이나 생성문법에서 추구해 온 '언어 외적 요인의 배제'는 사실상 상당히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언어학의 대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른바 순수 언어능력이라는 생리학적인 부분과, 언어와 지각체계 혹은 사유체계의 연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전자에 관하여 말하자면, 기존에 추구한 오로지 언어자체라든가 순수하게 언어능력인 부분에 대하여 언어학은 너무나 많은 외적 부분을 포함시키려 했다. 그것은 언어형식 자체도 아니고 심리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유전학이나 두뇌생리적인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최근의 언어학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 절은 그에 대한 고찰이다.

IV. 언어학에 대한 자연과학적 토대의 필요성

1. 두뇌생리학과 인지과학 : 생리적인 언어영역을 밝혀줄 분야

근래에 이르러, 언어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동물도 의사소통 체계가 있으나 인간처럼 상징체계에 의한 언어활동은 아니다. 그리고 이를 생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유전자에 별도의 언어 담당체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 생성문법에서 처음부터 가정한 것은 언어능력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것이며, 두뇌 속에서도 언어영역이 별도로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언어 자율적 체계를 지향하게 되고 그로써 보편문법, 즉 세계 모든 언어에 공통되는 원리로서의 문법을 주창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언어에 관한 뚜렷하게 연구대상이 무엇인가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언어는 생리·심리·사회(관습과 약정)에 걸친 복합체계인 점에 기인한다. 연구대상이 Saussure의 랑그처럼 언어 자체에 관한 것인가, 혹은 언어를 사용하게 만들어 주는 심리 및 생리학적 특성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그 모두를 포괄한 것인가를 언어학자 스스로도 혼동하고 있다.

Jasperson이나 Chomsky는 주로 통사적 능력을 크게 보고 있다. 그런데 통사적 능력은 일반 인지체계의 도움을 받아 외부 세계를 파악하는 능력과 더불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20세기 후반의 몇 십 년간 생성문법학자들에게 있어서, 통사구조가 자율적 체계인가 혹은 의미부분과 결부된 체계인가에 따라, 해석의미론(또는 통사자율론)과 생성의미론으로 구분되기도 한 바 있다.

김영주(1998)와 같은 연구에서는 Broca 실어증에 걸린 환자의 통사적 혼란에 대하여, GB이론의 D-구조(D-Structure)와 S-구조(S-Structure)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D-구조에서 S-구조로 이동변형을 겪는 과정의 실패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변형문법에서 제시된 D-구조 또는 S-구조가 심리적 실체로서 증명할만한 자료로서는 미흡하다.

생리학적 측면에서, 필자는 인간의 두뇌에서 순수하게 언어영역의 소관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음성인지 및 그것의 상징화 능력이다. 통사적인 부분이

자율적인지 아니면 의미(여기서 말하는 의미란 세계지식이다)의 지휘를 받는지에 대한 판단은 언어생리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Chomsky(1986, 1995)는 최초의 상태(initiative state)를 가정한다.

그러나 이 최초의 상태는 사실상 언어자료를 분석도구로 하는 언어학적 방법만으로는 규명될 수 없다. 언어의 복잡한 체계에 비한다면 생물학적 기제, 즉 최초의 상태는 강력하지만, 이른바 보편성에 기대어 설명하려던 언어자료 자체에 대해서는 극히 일면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사실상 언어 보편적 현상은 다른 인지체계나 기관들의 보편성과도 맥락을 같이 해야 하는데, 이는 순수언어기제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언어가 선조성을 띠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나 선조성은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혹은 언어가 기본적으로 시각적이 아니라 청각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고, 따라서 선조성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지 순수하게 언어적인 것은 아니다.

두뇌신경생리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오로지 언어만 관장하고 부분, 즉 일반 인지 체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두뇌영역의 역할이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다. 물론 작다는 것은 그 역할이 미약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기존의 생성문법학자들이 순수통사구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D-구조와 같은 모형 등 갖가지 자료에 대해서 이른바 '외적자극'들이 개입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유전자적인 언어영역에 대한 연구를 심리·사회·인지에 걸친 복합체로서의 언어자료를 통해 연구하려던 모순에 기인한다. 언어학이 그 영역에 관하여 실증적이고 명료해질 수 있으려면, 그에 관한 생리적인 측면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 언어 유전자, 정확한 두뇌영역, 그리고 다른 인지체계와의 유기적 상관성 등이 가시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제 언어학은 유전공학, 의학, 생리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본고에서 가정할 수 있는 순수 언어능력은 인간이 음성을 분절적으로 이해한다는 것과 그 음성을 의미와 결부시킬 수 있다는 상정능력과 같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일 뿐이다. 어린이의 언어습득과정에서 발견되는 사실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음성을 음운론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음위치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따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미 분화를 일으키는 문법형태에 준거하여 해당 음성들을 음운론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음성체계를 곧 의미체계로 연결시키는 상징화

능력과 결부된다. 본질인식 능력과 상징능력은 별개의 것은 아닌데 이들은 모두 연속적이고 도상적인 다른 동물의 의사소통체계와 대립된다.

2. 자연어 처리기

흔히 컴퓨터는 인간의 사고체계를 본떴다고 한다. 일반 동물의 인지체계와 인간의 사고체계의 다른 점은, 자연계를 상징화된 기제로 구분하고 분류하면서 파악한다는 것이다. 디지털(digital)은 그러한 관념의 소산이다. 예컨대, 자연계의 시간은 영속적이지만, 인간은 몇 년, 몇 시, 몇 분, 몇 초 등으로 구분하는데 컴퓨터도 이와 같다.

자연어 처리기는 전산기가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므로, 이를 위해서 인간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즉, 인간 언어를 목표하면서 인간 언어를 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이중성이 있다.

자연어 처리기, 즉 말하는 컴퓨터의 핵심은 등가성을 가지는 갖가지 문장들을 컴퓨터가 등가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나이다. 이는 변형문법 초기부터의 문제이기도 하다. 평서문에서 의문문이 도출되는 과정이나 타동문에서 수동문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동변형은 대표적인 예이다. 변형문법이 이론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도출의 기저구조를 추정하는 데에 동원되는 많은 문법기제들은 논리적 필연성에 의해 도입된 것들이지만 다소 추상적이기도 하다.

영어의 경우 의문사나 어순에 의해, 혹은 국어의 경우 의문사나 어미에 의해 컴퓨터가 그것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같은 내용의 질문을 질문자마다 혹은 질문시마다 다른 문장으로 묻는 경우에, 컴퓨터가 이들 문장을 등가적 구조에 적용시켜서 동일성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세계와 그 의미에 대해서 비언어적 지각 체계와의 교류 속에서 운영되는 인간의 언어와, 단지 그 언어를 본떠서 순수하게 기호내적 체계로 운영되는 컴퓨터 언어는 동일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활동에서 필요한 기호론적 세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기호와 해석체, 그리고 기호가 실제로 지시하는 대상이다. 인간의 언어활동에서는 기호로서의 언어가 대상을 지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연어 처리기에 있어서의 기호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을 참조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인간의 언어가 대상을 지시하는 점은 해석체로 하여금 - 비언어적인 - 대상을 인식하여, 발신자가 내보낸 언어를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해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컴퓨터는 언어 이외에 대상을 지각하는 체계가 없다. 시각에 해당하는 카메라나 청각에 해당하는 마이크 등이 있다고 현재로서는 언어처리기와는 거의 별개의 상태이다. 따라서 해석체로서의 인간은 기호 이외에 실제 대상을 기호해석에 참고하지만, 인공지능은 언어 완결적인 해석체가 된다.

여기서 '인간의 언어활동은 불완결성으로 인한 완전성을 지닌다'는 역설의 기호론적 관점이 가능하다. 세계와 사물, 혹은 언어체계 자체의 완전한 이해에 대하여 언어 자체는 불완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신자가 목표로 하는 대상을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이 때의 대상은 물리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대상이기도 하다. 즉 발신자가 바라보는 각도의 사물, 혹은 발신자의 정서, 사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랑그르로서의 기호체계는 단지 스스로의 기의를 기표로 표상할 뿐 발신자가 목표로 하는 대상과 일치될 수 없다. 따라서 온전한 의사소통이란 상황과 맥락, 그리고 수신자와 발신자가 공통으로 지각할 수 있는 물리적 대상 등의 참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이란 발신자와 수신자의 심리적 거리나 그들을 둘러싼 사회와 관습을 포괄하며 맥락이란 하나의 언어단위가 사용될 때 앞 뒤의 언어단위와의 연계성을 뜻한다.

반대로 '인공지능은 완결성으로 인한 불완전성을 지닌다'는 역설도 가능하다. 언어 처리기에 불변 고정적으로 입력된 기제로서의 기호체계는 항상 완결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완결성은 위와 같은 의사소통상의 재조정력을 상실해서 불완전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한 예로는, 현재 자동번역기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번역기가 오역을 하지 않도록 번역내용의 해당분야에 맞는 모드(mode)로 바꾸워 주는 장치가 있다. 그런데 이는 물론 현재까지도 실용적이지 못할뿐더러 궁극적으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때에 매순간 바뀌는 모드체계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다. 즉 인간의 언어 운용은 기호 특히 기의가 언제나 변화의 연속선차상에서 무한히 변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언어는 무한대의 변화와 창조성이 있다. 그러나 컴퓨터 언어처리기는 그 속성상 소통체계는 몇 가지 입력된 코드에 의한 변환, 또는 조합적 원리에 의한 창조성만 있을 뿐이다. 이는 마치 자동

차의 변속기가 아무리 많은 다단 조합 변속방식이라도 무단변속기(CVT,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의 무한성과는 차원이 다른 것과 같다. 그것은 폐쇄구조와 개방구조의 차이이다.

또한 사실상 인공지능에서의 해석체는 인간의 언어활동에서와는 달리 기호 자체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라면,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순환적인 분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의미해석이란 해석체와 기호간의 유기적인 관계이다. 여기에는 상황과 맥락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산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인공지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언어 자체가 본래 가변적이고 불완결성을 가지는 대상이다. 그 때문에 세계에 대하여 보다 완성도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적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칭)개방형 인공지능'의 개발은 아직까지 소원한 일이다.

다만 보다 많은 자료들을 입력하여 인공지능의 언어능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번역기나 구문 분석기에서, 변형생성문법적 원리보다는, 아직까지는 어휘나 말뭉치, 심지어는 관용적 문장 전체가 하나의 입력도구가 되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실제로 자연어 자동 처리기의 제작에 있어서 무한생성원리를 구가한다는 계층성과 선조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동 등의 규칙을 적용하는 변형문법 계열의 이론보다는 성분들의 관계를 다중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문법화 한 결합가 문법(Valence Grammar)이나 격문법(Case Grammar)이 더 유용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에 대한 시각에 중대한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구조주의 이후에 언어가 상징체계이며 분절적이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컴퓨터[digital]에 적용되어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적 속성을 본뜬 컴퓨터 언어처리가 궁극적으로 인간처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비상정적, 도상적 그리고 연속적 인지체계와의 끊임없이 교류함으로써 분절성과 상징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는 하나 이론적으로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가 인간과 같은 수준이라면, 적어도 세계를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단말기와 이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V. 맺음말

이쯤에서 독자들은 본고에서 중대한 문제를, 그러나 답을 얻기 어려운 문제를 생각할 것이다. 어디까지가 순수 언어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언어외적 영역인지의 문제와, 언어학의 연구대상이 불변 고정적 공시체계로서의 언어인지, 생래적으로 부여된 언어기관인지, 혹은 보다 복합적인 언어능력인지의 구분도 현재로서는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학 내부에서조차 혼란을 보이고 있다.

문장의 함수적 관계를 이용한 생성원리와 생래적 언어기관의 생성원리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간의 변형문법은 이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동일화하였으며, 이제는 이에 대하여 그 발상을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인간의 언어에는 수많은 것들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이들에 대한 분석은 언어학 내부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언어학을 위해서 다른 학문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언어학적 성과들이 언어학 자체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만도 아니다. 더 이상 전통적으로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학문들-예컨대 철학이나 문학, 또는 사회학 등등-만이 언어학과 교류하는 분야는 아니다. 현대 언어학은 생물·생리학, 의학, 심리학, 공학에 걸쳐서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토대를 필요로 하는 학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주(1998), 비문법적 실어증의 형태-통사론적 분석, 『한국인지과학회지』 9-1, 한국인지과학회.
- Chomsky, N.(1965), *Aspect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이홍배 역(1987), 『지배 결속 이론』, 한신문화사.
- Chomsky, N.(1986), *Knowledge of Language : It's Nature, Origin, and Use*. 이선우 역(1990), 『언어에 대한 지식』, 민음사.
- Chomsky, N.(1995), *The Minimalist Program*, MIT Press.
- Jackendoff, R.(1990), *Semantic Structure*, MIT Press.
- Larson, R. K.(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3.
- Palmer, F. R.(1994), *Grammatical Roles and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nker, Steven(1998), *The Language Instinct*, John Brockman Inc. 김한영 · 문미선 · 신호식 역 (1998), 『언어본능』, 그린비.
- Saussure, F. de(1972), *Cours de General linguistique*. Payot, Paris
- Williams, E.(1994), *Thematic Structure in Syntax*, MIT Press.